

# 역전에 역전 또 역전 ... 전남, 'FA컵 우승' 기적을 쓰다

합계 4-4, 원정 다득점 대구 꺾어  
K리그2 팀 사상 첫 우승컵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  
정재희, 1골 1도움 대회 MVP

전남드래곤즈가 대구FC를 꺾고 K리그2 팀 사상 첫 FA컵 우승 위업을 달성했다.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예비역' 정재희가 결승골을 장식하는 등 1골 1도움의 활약을 펼치며 대회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드래곤즈가 지난 1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2021 하나은행 FA CUP 결승 2차전에서 4-3 승리를 거뒀다.

안방에서 열린 1차전에서 0-1패배를 기록했던 전남은 4골을 몰아넣으면서 합계 4-4, 원정 다득점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원정 4골'로 극적인 뒤집기에 성공한 전남은 K리그2 팀 최초 FA컵 우승과 ACL 출전이라는 기록을 작성하게 됐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기록된 전남의 4번째 FA 우승이기도 하다.

올 시즌 김천상무의 K리그2 우승을 이끌었던 정재희는 팀에 복귀하자마자 잡자던 전남의 공격을 깨우고 FA컵 우승까지 차지했다.

공격의 시작과 끝에 정재희가 있었다.

전남은 전반 24분 만에 상대의 퇴장이라는 행운을 얻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대구 홍정운이 몸싸움을 하던 황기욱의 얼굴을 팔로 가격하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다.

수적 우위를 안은 전남은 전반 39분 선제골을 장식했다. 오른쪽에서 침투한 정재희의 컷백 패스를 박찬용이 오른쪽 눈스톱 슈팅으로 연결시키면서 대구 골망을 흔들었다.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대구 라마스의 패스를 받은 세징야가 가슴과 머리로 공을 트래핑 한 뒤 오른쪽 슈팅으로 전남의 골대를 갈았다.

하지만 전반전은 2-1, 전남의 리드로 끝났다.

전반 45분 코너킥 상황에서 장성재가 띄운 공이

바운드 된 뒤 대구 골대 앞으로 향했다. 문전에서 상대 골키퍼 최영은이 주춤한 사이 고태원이 공을 밀어 넣으면서 전남의 두 번째 점수를 만들었다.

후반전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됐다.

후반 초반 대구 에드가와 전남 울렉이 한 골씩 주고받았다.

후반 6분 에드가 헤더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자 후반 10분 울렉이 상대 수비수가 머리로 쳐낸 공을 멋진 발리슈팅으로 연결해 3-2를 만들었다.

후반 중반 전남의 우승 도전에 위기가 찾아왔다.

후반 21분 전남 골키퍼 박준혁이 수비수 고태원이 머리로 쳐낸 공을 골라인 앞에서 잡았다가 놓쳤다. 골 문 앞에 있던 대구 츠바시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무릎으로 공을 밀어 넣으면서 승부를 3-3으로 만들었다. 앞선 1차전에서 대구가 1-0 승리를 거뒀던 만큼 그대로 경기가 끝나면 대구의 우승의 확정되는 상황.

실상가상 전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퇴장까지 나왔다. 후반 31분 세징야와 골 경합을 벌이던 정호진이 거친 태클을 하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양 팀 모두 10명의 선수를 앞세워 막판 혈전을 이어갔다.

그리고 전남 공격을 열었던 정재희가 후반 38분, 이번에는 직접 골을 만들면서 주인공이 됐다.

왼쪽에서 발로테리가 공을 넘겨줬고, 중앙에서 공을 잡은 사무엘이 뒤에 있던 정재희에게 공을 찔러줬다. 그리고 정재희가 침착하게 상대 수비수를 피해 왼발로 슈팅을 날리면서 골대 왼쪽을 갈았다.

우승을 눈앞에 두고 전남이 마지막 위기를 맞았다.

후반 추가 시간 대구의 마지막 공격이 진행되던 상황. 세징야의 패스를 받으려던 에드가가 고태원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졌다.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지만, 온 필드 리부 끝에 페널티킥이 취소되면서 전남이 한숨을 돌렸다.

그리고 이내 경기 종료로 알리는 휘슬이 울리면서 K리그2 4위팀 전남이 역사적인 FA컵 우승을 장식했다.

화력 고민에 빠져있던 전남을 깨우며 1골 1도움의 활약을 펼친 정재희는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컵과 MVP 트로피까지 차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11일 대구 DGB대구은행파크경기장에서 열린 2021 하나은행 FA컵 결승 2차전 전남 드래곤즈와 대구FC 경기에서 전남이 4-3으로 승리 후 전남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페퍼스, 승부처에서 범실 또 범실

KGC인삼공사에 0-3 패배

엘리자벳 빠진 자리 박은서 활약



페퍼스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가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으로 코트를 달렸다.

AI페퍼스가 12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경기에서 KGC인삼공사와 맞붙어 패배했다. 세트스코어 0-3(21-25, 22-25, 13-25).

AI페퍼스에게는 '도전'의 경기였다. 주포 역할을 맡아 왔던 엘리자벳을 과감히 신인 박은서로 대체하고, 국내 선수들로만 합을 맞췄다. 최근 무릎 통증을 호소한 엘리자벳의 부담을 줄이고, 물 오른 공격력을 보여준 박은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이었다.

박은서는 1세트부터 주전 라이트로 투입됐다. 박은서의 패기 있는 공격과 박경현의 순발력있는 디그를 앞세워 17-17까지 균형을 맞췄다. 문슬기가 디그한 볼을 이현이 기습적으로 오른 공격으로 연결하는 등 센스 있는 플레이도 선보였다.

기세는 좋았지만, 서브 범실이 발목을 잡았다. 1세트에서만 7번의 서브가 아웃라인을 넘어가고 네트에 걸리며 흐름을 끊었다. 박은서의 서브가 아웃라인을 넘어가며 21-24로 세트포인트를 내렸고, 이어 이소영의 오른 공격이 이현의 손을 스킵고 튕겨나가 21-25로 아쉽게 첫 세트를 내줬다.

2세트에서도 AI페퍼스는 쉽게 세트를 내주지 않았다. 8-12까지 밀렸다가도, 금세 12-12로 따라잡았다. 쫓고 쫓기기를 반복하며 19-20까지 승부의 추가 기술이 없었다. 이소영-정호영의 공격에 이현비의 디그가 흔들리면서 21-24로 선두를 내줬고, 박은서가 서브 범실을 저지르며 2세트도 고배를 마셨다.

AI페퍼스는 3세트에서 8-16으로 밀리며 힘이 빠졌다. 장기간 릴리 끝에 오른 공격-블로킹에 실점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신적으로도 흔들렸다. AI페퍼스는 이렇다 할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한 채 13-25로 완패했다.

비록 패배했지만, AI페퍼스로서는 실보다 득이 많은 경기였다.



12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염주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페퍼스축은행과 KGC인삼공사의 경기에서 페퍼스축은행 박은서가 공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엘리자벳에게 의존하지 않고 국내 선수들만으로 충분한 경기력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은 "보통 이런 선수진 변화는 시즌 마치고 이뤄지는데, 우리는 실전과 연습을 병행해야 하는 입장이다"며 "선수들이 엘리자벳이 없더라도 힘 내서 잘 해 주길 바랐다. 세트 이현·구슬에게도 국내 선수들을 활용하는 좋은 공부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서는 이날 17득점을 올리며 라이트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양 팀을 통틀어 최다 득점자도 이름을 올렸으며, 공격 성공률도 43.59%로 준수했다. 박은서가 '엘리자벳 교체'에 집중하는 상대 팀을 혼란에 빠뜨리는 '깜짝 카드'로 활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셈이다.

이영택 KGC인삼공사 감독도 "상대 외국인 선수가 없다 보니 선수들이 방심 아닌 방심을 한 것 같다. 한 번 페이스가 떨어지니 울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할 정도였다.

김 감독은 "큰 소득을 얻었다. 박은서가 에이스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부풀어 오른다. 앞으로 레프트-라이트를 왔다갔다 하면서 컨디션이 떨어지는 선수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혜진도 기습적인 속공을 수 차례 선보이며 수비진을 흔들었다. 그간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의 "하혜진이 줄곧 연습해 온 속공 플레이를 실전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플레이였다.

김 감독은 "하혜진은 엘리자벳의 대타로 센터를 맡았지만, 지금은 센터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181cm 큰 키를 가진 하혜진 센터를 발견-육성할 것 또한 우리 팀의 가장 큰 소득 중 하나"고 말했다.

김 감독은 이어 "선수들이 경기 리듬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겠다. 훈련 일정을 잘 짜서, 다음 시합에서는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프로야구 FA시장 뜨거워진다

양현종·나성범·박건우 등 15명  
가장 뜨거운 포지션은 외야

잠잠했던 FA(자유계약 선수) 시장이 뜨거워진다.

이번 겨울 FA 시장이 막이 오른 지 2주일이 지났다. 지난달 25일 KBO가 FA 승인선수를 공시하면서 다음 날인 26일부터 각 구단의 FA 협상이 가능해졌다.

FA 시장에 나온 선수는 장성우-허도환-황재균(이상 KT), 김재환-박건우(이상 두산), 백정현-강민호-박해민(이상 삼성), 김현수(LG), 박병호(키움), 나성범(NC), 정훈-손아섭(롯데), 최재훈(한화) 등 총 14명이다. 여기에 미국 도전을 마치고 돌아온 양현종도 두 번째 FA 자격을 얻은 상황.

지금까지 행선지가 결정된 선수는 최재훈 밖에 없다.

최재훈은 FA 시장이 열린 지 이틀째인 지난달 27일 한화와 5년 최대 54억원에 도장을 찍으면서 팀 잔류를 결정했다.

최재훈 이후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 추가 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잠잠하던 'FA 시장'이 스토브리그의 새로운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골든글러브를 끝으로 시상식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각 구단의 전력 재정비 작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13일이 찾아왔다. KIA 최원준을 비롯해

14명의 상무 합격자가 13일 국군체육부대에 입소하면서 '군보류 선수'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집토끼를 잡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외부 FA를 노리는 팀은 보상선수까지 다양한 계산을 해야 한다.

FA는 등급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다르다.

A등급 선수를 영입한 팀은 원 소속팀에 해당 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의 200%와 20명 보호선수 외 1명 또는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B등급은 직전 연도 연봉의 100%와 25명 보호선수 외 1명을 내어주거나 전년도 연봉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C등급은 직전 연도 연봉의 150%만 보상하면 된다.

A·B 등급의 선수를 노리는 팀들은 한 명이라도 선수를 보호해야 하는 만큼 '군보류 선수'가 더해지는 13일을 D데이로 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FA를 영입한 구단은 KBO 총재 공시 후 3일 이내 보호선수 명단을 상대 구단에 제시하게 된다. 보호선수 명단을 넘기는 시점을 기준으로 선수들의 신분이 정해지는 만큼 사실상 13일이 지나면 상무 입대 선수들은 자동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도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격전지'가 됐던 외야가 이번 FA시장에서도 가장 뜨거운 포지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야 대어들이 동시에 FA자격을 얻으면서 이들의 움직임과 연쇄 이동 등이 이번 스토브리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초·중 야구부에 3000만원 상당 야구 용품 지원

KIA 타이거즈가 연고지역 초·중 야구부에 3000만원 상당의 야구 용품을 지원했다.

KIA는 최근 광주, 전남, 전북지역 초등학교(11개교)와 중학교(10개교) 야구팀에 경기용 공 3박스를 각각 전달했다.

KIA는 매년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중학교 야구대회를 통해 참가 팀에게 경기용 공 등

야구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연고지역 초·중등학교에 용품만 전달했다.

KIA 관계자는 "지역 야구 꿈나무들이 기량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용품 지원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